

문화

# 긴 시간 도보와 오랜 관찰 ...사념 사라진 그 순간 포착

불교성지 앵글에 담은  
오철만 명상 사진작가

“듣고나는 그 순간을 담은 도구가 사진 기이긴 하지만 자신을 관찰하는 도구도 사진이죠. 풍경도 사진도 경계의 선상에서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의 도보와 오랜 관찰을 통해 얻은 직관의 세계가 곧 제 작업의 결과물이죠.”

오철만 작가(44)는 1997년부터 인도와 네팔 티베트 캄보디아 등을 돌면서 불교성지와 주변 풍경 등을 사진으로 담아왔다. 그 결과는 지난 7월 ‘영혼의 땅 인도 히말라야, 잔스카르와 라다크 전’에서 선보였다. 또한 오작가는 자신이 17년간 작업한 일부 작품을 10월 12일~12월 29일까지 열리는 천대중앙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전에 기증하기도 했다. 명문대 경영학도였던 그가 사진을 만나게 된 것은 불가의 인연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딱 한 달의 여유 시간이 생겼는데 인도에 살던 누나의 권유로 인도 여행을 하게 됐죠. 그런데 히말라야를 오르다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어요. 그 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았죠.”

비행기를 탈 수 없었기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유학을 가기로 한 날짜는 이미 지나버렸다. 인도에서 인연이 된 청진 스님의 권유로 아침저녁으로 108배를 했고 바라나시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지내던 시간을 정리했다. 그때서야 지금까지의 삶은 자신이 원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삶을 살고 싶었다.

“제가 가려고 했던 삶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원하던 삶이라는 걸 알았죠. 예술 계통의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림은 자신이 없었고 기계를 잘 다루니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은 직관의 작업이잖아요. 선과도 연관되어 있죠. 저와 잘 맞았



오철만 작가는 사념이 사라지는 그 순간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걷고 관찰하기를 반복한다고 말한다.

### 유학 포기하고 사진작가로 변신

### 인도, 캄보디아 등 17년 순례

### 7월 ‘인도, 히말라야 전 열기도

### 12월 24~29일 가나아트 초대전

거라 생각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진을 공부했죠. 돈을 모아 인도를 오가며 그곳의 삶을 사진으로 담아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경계의 안과 밖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초반기 작업을 경계 안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이후 경계의 밖으로 나오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지금은 경계의 선상에서 객관화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2월 24일~29일 가나아트스페이스 기획초대전으로 열리는 ‘에이선트 앙코르’는 그의 이런 시각이 잘 반영된 전시다. “한 곳의 사진을 찍기 위해 앙코르와 사원과 주변의 도시를 수십차례 찾으며 관찰했죠. 천상의 여신 암사라는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를 봐달라며 서 있는 거 같았고, 거리의 화가는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

며 존재의 의미를 온몸으로 말하고 있고. 그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은 앙코르와트르를 통해 시간을 이야기 해보고 싶었습니다.” 작가는 앙코르와트의 풍경도 사람도 또 형상들도 그 어떤 것에도 연민하거나 도취되지 않는다. 다만 바라볼 뿐이다. 경계의 선상에 서 있는 것이다. 생각도 감정도 떠나버린 그 자리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을 담아내는 것이다.

“감정에 경도되는 순간 셔터를 누르는 것을 저는 경계합니다. 생각도 감정도 떠나버린 그 상태를 담기 위해 끊임없이 걷고 오랜 시간 대상을 관찰하죠. 그러면 반드시 그 순간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셔터를 누르면 그 상태가 바로 선이고 명상이 되죠.”

안정된 삶을 버리고 전업 작가로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바라보는 이 순간을 세상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하니 계속 사진기를 들 수 있었다고 작가는 말한다.

“사념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지 않았다면 셔터를 누를 때가 아니다” 오철만 작가는 오늘도 그 순간과 만나기 위해 명상에 잠긴다. 그렇게 진리의 세계를 향하는 길 위에서 그는 가슴에 사진기를 안고 걸어가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초전법륜지 사르나트, 나무 사이로 올라오는 폴처럼 불빛이 잘 전파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부처님 탄생지 룬비니

# 어느 날 옷을 떨치고 올라 보겠는가

깊은 역사와 빼어난 경치

“산은 장성군 북쪽 30리에 있는데 그 이름을 백암(白巖)이라 하였으니 암석이 모두 흰 색깔이라서 그렇게 이름 하였다고 한다. 석벽은 깎아지른 듯 험하고 산봉우리는 증첩하여 그 맑고 기이하며 웅장한 모습이 실로 이 지역의 명승지가 될 만하므로 신라 때의 어떤 이승(異僧)이 처음으로 절을 짓고 살면서 이름을 백암사(白巖寺)라 하였다.”

삼봉 정도전(1337~1398)이 지은 <백암산정토사료구기>의 일부다. 오늘날 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인 백암사의 연원이 신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알려준다. 절경 속의 명찰이란 백암사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듯, 백암사는 그 역사와 입지적 여건이 빼어나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왔고 가작(佳作)들을 남기기도 했다.

무엇보다 백암사는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쌍계루라는 2층 누각이 주변 경치와 어울려 기묘한 풍광을 자아낸다. 그래서 백암사 관련 옛 시들의 대부분이 바로 쌍계루를 읊고 있다.

“사찰의 사면을 에워싼 산들이 모두 높고 가파르기만 해서, 찌는 듯이 더운 여름 철에도 더위를 피해 시원한 바람을 쐬 곳이 없었기 때문에, 두 물이 합류하는 곳에 다 터를 정하고 누각을 세우게 되었는데, 왼쪽 시냇물 위에 걸터앉아서 오른쪽 시냇물을 아래로 굽어보고 있노라면,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에서 서로 비춰 주는 등 실로 보기 드문 승경(勝景)을 이루고 있다.”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이 지은 기문 <장성현백암사쌍계루기>의 일부다. 이 기문에 따르면 쌍계루라는 누각의 이름은 이색이 지었다. 그리고 쌍계루 자리에 누각을 처음 지은 사람은 각업존자(覺業尊者 1270~1355)라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각업존자는 고려 충정왕과 공민왕의 왕사를 지낸 각진국사(覺眞國師) 복구(復丘) 스님인데 승보사찰 송광사의 16국사 중 13세 국사다. 각업존자는 1355년에 노구를 이끌고 백암사로 와서 입적했는데 그로 인해 절이 상당히 확장됐다. 그 때 지어진 것이 오늘의 쌍계루 원형인 셈이다.

구시금전백암승(求詩今見白巖僧) 파필침음괴미능(把筆沈吟愧未能) 청수기루명시중(淸 處樓名始重) 목옹작기가환증(牧翁作記價還增) 연광표묘산자(烟光 暮山紫) 월영배회추수정(月影徘徊秋水澄) 구향인간번열외(久向人間煩熱外)

###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 ㉔ 장성 백암사 ㉔



백암사 주변경치와 어울려 기묘한 풍광을 자아내는 쌍계루. 단풍에 물든 모습이 아름답다.

불의하일공군등(佛衣何日共君登)

지금 시를 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니

붓 잡고 생각에 잠겨도

능히 읊지 못해 부끄럽네.

청수스님이 누각을 세우니

이름이 더욱 중후하고

목은 선생이 기문을 지으니

그가 치도리어 빛나네.

노을빛 어둑하니 저무는 산이 붉고

달빛이 흘러 들어가니 물이 맑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서 시달렸거니

어느 날 옷을 떨치고 그대와 함께

올라 보겠는가.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0337~1392)의 이 시는 오늘날까지 쌍계루 시의 ‘원조’로 전해지고 있다. <포은선생문집> 제2권에 실린 <장성백암사쌍계루기(長城白 峙雙溪寄題)>라는 작품이다. 쌍계루 기문을 쓴 이색의 제자인 정몽주는 이 시에 누각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청수 스님의 중수와 목은 선생이 기문을 지은 것으로 누각이 번듯하게 서 있음을 칭송하고 저런 풍경을 읊음으로 쌍계루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쌍계루 아래 정몽주의 시를 소개한 안내판에는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서 시달렸거니/ 어느 날 옷을 떨치고 그대 더불어 올라 보겠는가”라는 대목을 두고 고려 말의 혼란한 시대상을 가슴 아파하며 판자를 버리고 임금과 더불어 쌍계루에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여 두었다.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다가 선죽교에서 테러를 당해 죽은 정몽주이고 보면 이런 해석도 억지는 아니겠지만, 시의 흐름을 볼 때 ‘군(君)’은 임금이러기보다는 친한 벗쯤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

인다. 물론 여기서의 친한 벗이란 시를 부탁하는 백암사의 스님일 확률이 높다. 세상에 시달리던 정몽주는 관복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어 스님과 함께 쌍계루에 올라 노닐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언젠가 꼭 가고 싶은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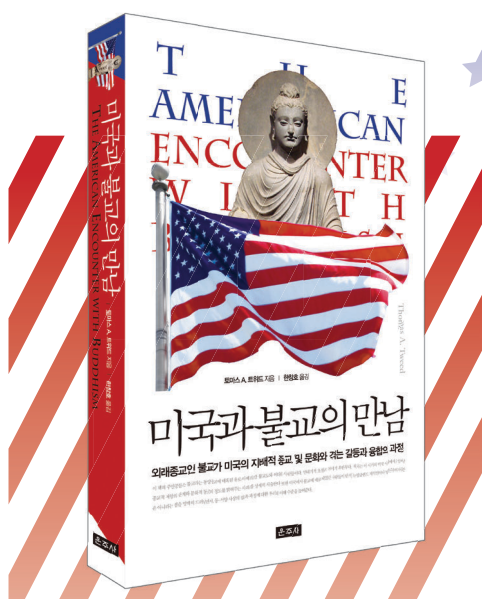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도암(道庵)이라는 백암사 스님과 교분이 두터웠다. 경기도 양주에 별업을 두고 있던 서거정은 그곳 출신의 승려인 도암과 50여 년이나 친분을 맺었다. 서거정은 도암 스님이 양주 흥천사에서 하안거를 마치고 백암사로 돌아갈 때 절구 5수를 써주었다. 그 중 첫 번째 시를 보자.

남국명람시백암(南國名巖是白庵) 루대다소간창람(樓臺多少問晴嵐) 하시혜발심사거(何時鞋屐尋師去) 명월쌍계공연담(明月雙溪共歡談)

남국에 가장 이름난 절이 바로 백암사라 수많은 누대 사이엔 담기가 어려웠는데 언젠가 짚신 버선 차림으로 스님을 찾아 밝은 달밤 쌍계에서 중흥히 담론해볼꼬.

서거정 <사가시집> 제45권에 <송도암 상인환백암사>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작품이다. ‘언제나 짚신 버선 차림으로 스님을 찾아 밝은 달밤 쌍계에서 중흥히 담론해볼꼬’라는 대목은 곧바로 정몽주의 시를 연상시킨다. ‘짚신 버선 차림’이란 다름 아닌 관료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벗어난 자유로운 몸을 말한다. 서거정은 지금 도암 스님에게 “나도 알른 퇴직하고 스님 계산 절에 가서 달밤에 그 유명한 쌍계루에 올라 밤새 이야기나 나누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 불교라는 동양 종교에 매혹된 초기미국인들의 이야기



토마스 A. 트워드 지음  
한창호 옮김  
신국판/440쪽  
값 20,000원

## 미국과 불교의 만남

외래종교인 불교가 미국의 지배적 종교 및 문화와 겪는 갈등과 융합의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있음

## 불보살님의 자비와 가피를 함축하고 있는 진언(다라니)! 진언의 공덕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진언 사경!



사륙배판/112쪽 내외/각 5,000원

- 1 과거세부터 지어온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
- 2 입장을 소멸하는 진언
- 3 태교와 어린이를 위한 진언
- 4 학업성취를 위한 진언
- 5 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언
- 6 소원성취를 위한 진언